

문 대통령-트럼프, 내달 중순 ‘한미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중순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정상회담은 내달 중순쯤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그 정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5월 말 또는 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 사이에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해왔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정의용·볼턴, 비핵화 조율…“남북·북미회담 성공”

“남북회담 후 정상간 통화”…“남북 의제 경제 빠져”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종전선언에 대한 협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현지 시각 24일 오후 3시 카운터파트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남북정상회담과 내달 열린 한미정상회담 개최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운영чан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정 실장은 볼턴 보좌관을 한 시간 만났”며 “두 사람은 남북정상회담 준비상황, 특히 한반도 비핵화 목표달성을 위한 양국간 긴밀한 공조방안에 대해 의견 조율을 마쳤고 정상회담 후 상황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두 사람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직후 전화 통화를 하고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공유

하기로 합의했다”며 “또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두 정상의 만남을 추진하는 방안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회동을 마친 뒤 “볼턴 보좌관과의 만남은 매우 실질적이고 유익했으며 한미 양국은 남북정상회담 후에도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진행상황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남북간 협의내용을 놓고 긴밀하게 공조하기 위해 전화 통화보다는 직접 대면해 만나는 게 훨씬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 방미한 것”이라며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모

두 성공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 측과 한미 측이 있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북미정상회담까지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긴밀히 협의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상호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정 실장의 한미 회동 결과를 들고 방북할 가능성에 그는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널이란 측면에서는 정상회담은 미국 채널을 맡아 줘야 하고, 서원장은 북측과 얘기해야 하니, 서로 말

은 역할에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지난달 20일 노동당 전원위원회에서 핵·경제 병진 대신 경제건설 집중 노선을 선언한 만큼 남북정상회담에서도 경제문제가 논의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관측에 그는 “북한의 발표가 경제에 방점이 찍혔지만,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경제문제가 별도로 의제화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이 정 실장에게 ‘너무 앞서가지 말라’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정 실장은 26일 귀국한다. /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 ‘이곳에서’

오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장이 공개됐다. 정상회담 테이블은 궁궐의 교각 난간 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두 개의 다리가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으로 제작됐으며 정상들이 앉는 테이블 중앙 지점의 테이블 폭을 2018mm로 제작, 한반도 평화 정착 실현을 위한 역사적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회담장 배경에는 금강산의 높고 푸른 기상을 담고 있는 신장식 작가의 ‘상팔당에서 본 금강산’ 작품이 걸려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실내 인테리어는 한옥의 대청마루를 모티브로 전체적으로 한옥 내부 느낌이 나도록 조성했다. /연합뉴스

개헌 또 멀어지나… ‘임기 내 어렵다’ 비관론까지

권력구조 등 핵심 쟁점 험로… ‘2020년 총선 개헌’ 전망 불투명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개헌을 하는 것마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비관론이 흘러나온다.

정치권에서 ‘9월 개헌’이나 ‘2020년 총선 동시개헌’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핵심쟁점인 권력구조 개편문제 등에서 여야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물론 야권을 중심으로서는 개헌의 불씨를 살려 보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6월 여야 개헌안 합의, 9월 개헌 국민투표’ 시간표를 제시한 바 있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도 25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른 시일 내에 국회 주도의 개헌을 받

시 성사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당분간 개헌논의를 이어 갈 동력확보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핵심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논의는 계속 쟁점을 돌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당은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제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규정하고 수용불가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의 영장청구권 삭제, 수도조항 삽입, 토지공개념 도입 등에서도 여야간 입장이 갈리고 있어 논의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드루킹’ (필명) 댓글 조작 사건이 불거지기 전부터 개헌투

표 시기 및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대립으로 개헌을 성사시키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현재 파행 중인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원점으로 논의가 되돌아가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는 다른 중요한 국정과제가 많은데 언제까지 개헌문제만 붙들고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지방선거 등 전국단위의 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치르지 않으면 투표를 확보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민주당 등에서는 ‘2020년 총선 동시개헌’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 역시 전망이 밝지 않는 게 사실이다.

국회 관계자는 “지금은 다음총선이 2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각 정당은 총선결과에 사활을 걸어야 해 선거 직전의 협상은 한층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2020년 총선 이후에도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는 여당과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야당의 대립이 가팔라질 가능성이 큰 만큼 개헌안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아울러 여권 일각에서는 이 이상 개헌논의를 끌고 가는 것이 자칫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회의론도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도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민생 챙기기과 국가개혁에 힘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개헌논의가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를 빨아들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가브리핑

황주홍, ‘2018 의정활동 우수의원 대상’ 선정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 대상 및 2018 대한민국 프리미엄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2018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 대상’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프리미엄 인물대상 선정위원회는 매년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본회의출석률, 법안발의 현황, 언론·방송활동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정활동이 우수한 국회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올해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 대



대표발의 등을 통해 입법·정책 관련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황 의원은 “20대 국회 반환점을 맞아 좋은 평가를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묵묵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은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등 7명이 수상했다.

황 의원은 높은 출석률과 다수의 민생법안

손금주, ‘교통약자 편의 증진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소속손금주의원(나주·화순)은 25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 휠체어 항공기 탑승설비 설치, 인적 서비스 제공 등 항공기 탑승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동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저가항공사를 이용하려던 장애인이 항공기에 탑승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탑승이 거부돼 여행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손 의원은 “항공사의 재정을 이유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며 “"탑승교, 휠체어리프트, 인적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조차 지

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의 불평등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또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교통약자 권익을 제고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PERON GOLF



얼라인먼트된 골프공
엑스페론



CHECK! ☒ 골프공은 완전한 구체가 아닙니다.
☒ 골프공은 무게중심이 뒤틀려있습니다.
☒ 골프공은 속이 더중요합니다.
☒ 실력보단 골프공을 먼저 의심하세요.



특허청
Scree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NNOBIZ
기술혁신명품소기업
USGA
Conforms with USGA and R&A Regulations
ISO 9001
TRADE MARK
www.xperon.co.kr | 02-2070-5009 | trade@xperon.co.kr